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일정 등

ALL ABOUT LAW SCHOOL

로스쿨 인사이드



2018. APR + MAY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들어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어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과도기에 있다. 디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눈을 가렸듯이 우리도 서로의 이익과 명분만이 아닌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할 때이다.

“법조인은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양성되어야 한다.”



CONTENTS



PART. 0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 04 법학적성시험 개요
- 06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 18 자주하는 질문
- 20 LEET 고득점 후기

PART. 02 ALL ABOUT LAW SCHOOL

- 22 로스쿨 개요
- 24 교육과정 소개
- 26 실무교육
- 28 장학금 제도
- 30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선발
- 31 변호사 시험
- 32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 34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①
- 36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②

38 [붙임자료]

발행일 2018년 4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이형규 이사장
 편집·진행 김명기 국장, 김나경 대리, 박소희 대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편집회사 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삼화인쇄(주)

<로스쿨 인사이트>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 (<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법학적성시험 개요

1.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법학적성시험 결과의 활용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영어 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시험 일시 및 장소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8. 7. 15.(일)에 실시함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함
- '서울'의 경우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 수험표 출력 시(6.28.~7.15.) 배정된 학교 확인

4. 2019학년도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125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	논술	2	14:00 ~ 15:50(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정량 평가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법학적성시험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함(2016.12. 발표)

5.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주요일정

일 자	주요 내용	비 고
2018. 2. 1 (목)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2018. 5. 29(화) ~ 6. 7(목)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LEET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018. 6. 28(목)	수험표 교부	시험당일 지참
2018. 7. 15(일)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	
2018. 8. 23(목)	성적발표	LEET 홈페이지

6.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 논술은 추후 수험생이 지원하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함

-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각 영역의 문항 유형 소개

1. 언어이해

① 출제 기본방향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3개 영역 공통)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② 문항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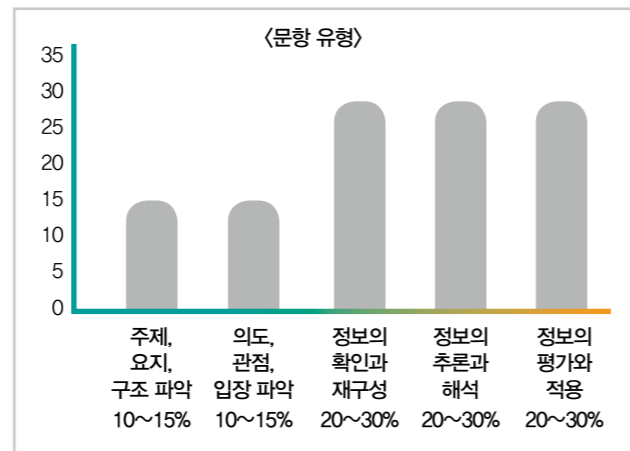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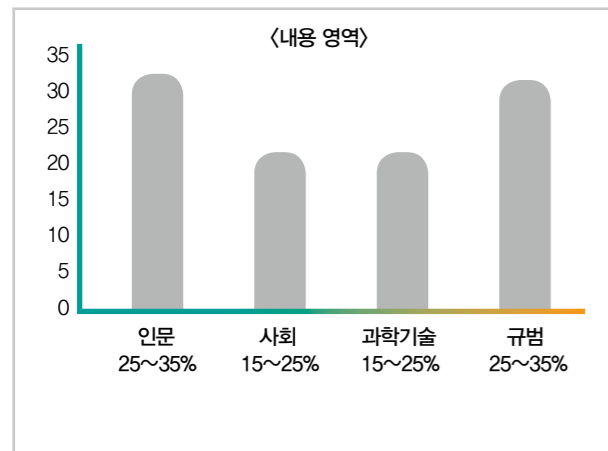
* 내용 영역

인문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사회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과학 기술 자연 현상, 기술 공학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규범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문항 유형

주제, 의지, 구조 파악

- 제시문 전체 또는 부분의 주제, 중심 생각과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문장이나 문단과 같은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역할을 고려하여 제시문 전체의 구조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의도, 관점, 입장 파악**
 - 글쓴이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이 가진 의도, 관점, 입장, 태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③ 문항 해결 방법

주제 파악

- 글의 주제를 파악함

글의 논리적 전개 방식 파악

- 제시문의 각 문단이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함
- 논리 전개 방식의 예
 - 1) 주제 소개
 - 2) 논의가 될 첫 번째 주장이나 가설 설명
 - 3) 반론과 반론에 대한 대응
 - 4) 저자의 최종적인 주장 및 근거 제시

문항을 읽고 정답 찾기

- 각 문항을 읽고 정답을 찾음
- 세부 정보의 확인을 요구하는 문항을 해결할 때는 필요하다면 제시문의 해당 부분을 다시 읽고 문항을 해결함

2. 추리논증

① 출제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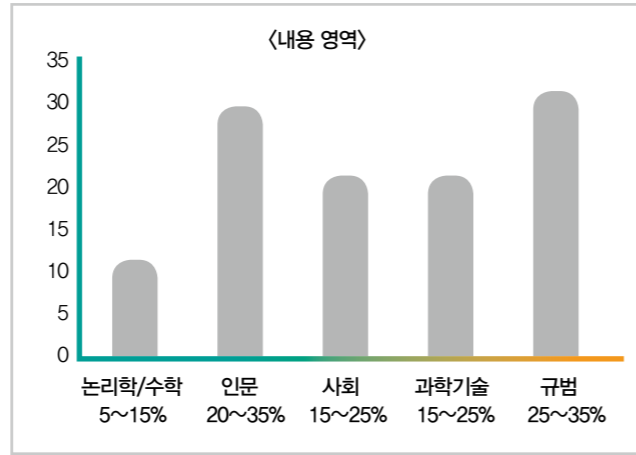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② 문항 유형

* 내용 영역

- 논리학·수학** ※하단 참고
- 인문**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 사회**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과학기술** 자연 현상, 기술 공학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규범**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논리학·수학'은 추리 문항의 해결에 필요한 원리를 제공해 준다는 중요성과 추리 문항에서 다루는 소재 중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에 속하지 않는 일상적 소재를 분류상 포함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 때문에 모형추리 영역에서만 '인문'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으로 분류함



추리 40~60%		논증 40~60%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평가 및 문제해결
20~30%	20~30%	10~20%	15~25%	15~25%

* 문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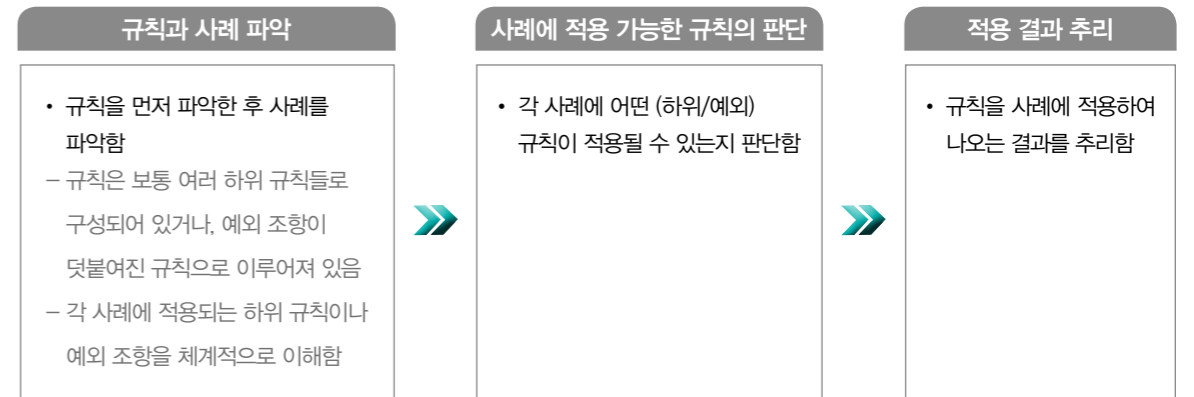
추리 (40~60%)	언어 추리	합축 및 귀결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합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원리 적용	규범 및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하여 올바르게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사실관계 추리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함
	모형 추리	형식적 추리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함
		논리 게임	논리게임: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제시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수리 추리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추리나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함

논증 (40~60%)	논증 분석	명시적 요소 분석	논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전제들과 결론을 찾아내고, 전제들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함.
		암묵적 요소 분석	논증이나 추리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전제들을 찾아내어 완전한 논증이나 완전한 추리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구조 분석	논증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논쟁 및 반론	논쟁 분석 및 평가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며, 논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반론 구성	주어진 논쟁의 상황에 참여하여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오류	잘못된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평가 및 문제 해결	논증 평가	주어진 논증의 적절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강화 또는 약화	새로운 정보나 증거의 추가가 기존의 논증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문제 해결	옳다고 믿는 가설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틀린 역설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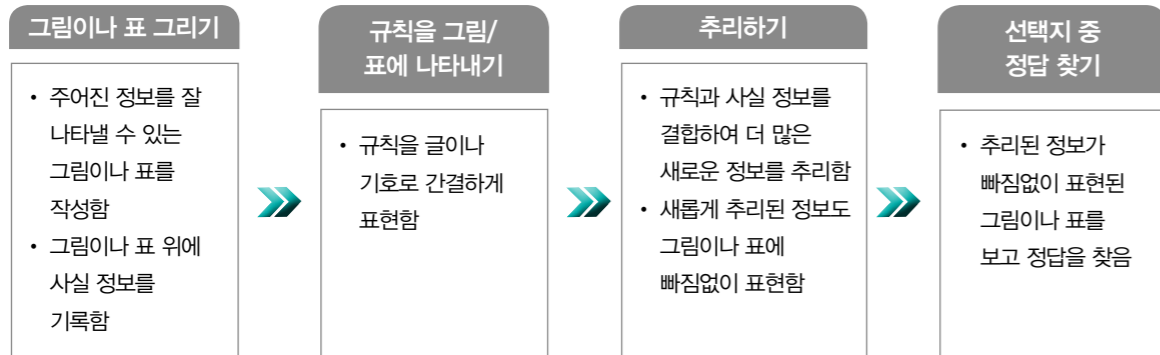
③ 문항 해결 방법

1) 추리

* 원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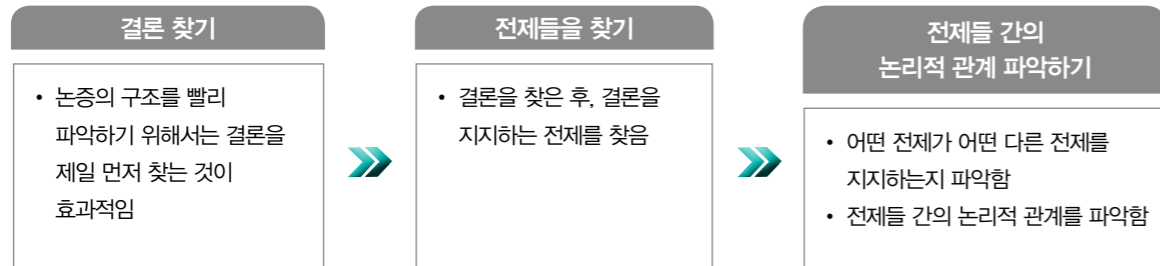


*** 논리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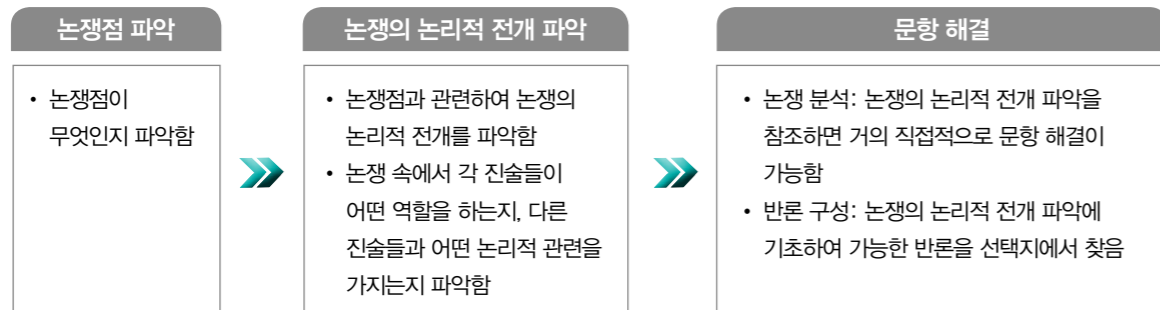


2) 논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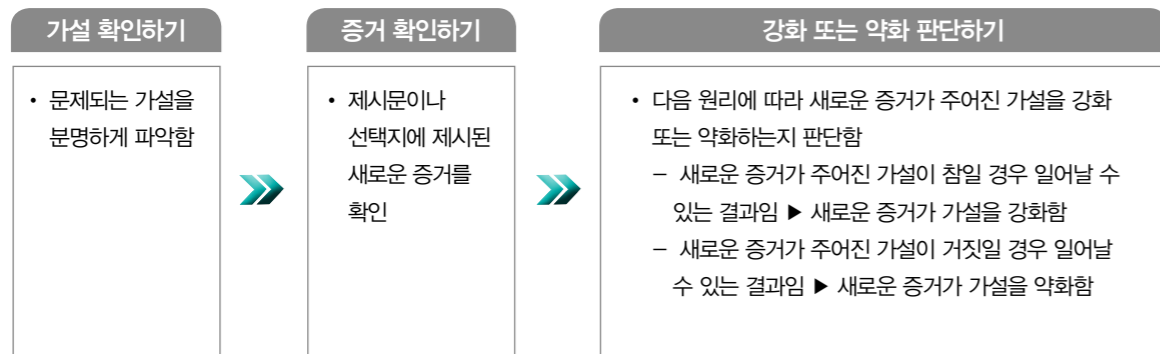
*** 논증 분석**



*** 논쟁 및 반론**



*** 강화 또는 약화**



3. 논술 영역

① 출제 기본방향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② 문항 유형

- 사례형
 - 주어진 사례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과 그 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내용 영역	인지 활동 유형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제시문 분석	논증	비판	전개	표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복합							

1) 내용 영역

- 인문: 인간의 본질과 문화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적 텍스트
- 사회: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과학기술: 자연 현상, 기술 공학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 법·규범: 법과 윤리에 대한 탐구와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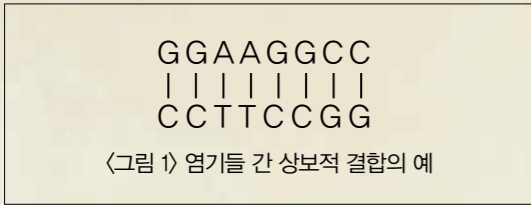
2) 인지 활동 유형

- 분석: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 논제 분석: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제시문 분석: 제시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 구성: 사고를 구성하여 글로 완성하는 능력
 -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 비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및 판단 능력
 - 전개: 심층적 및 독창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
 -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

[언어이해] 문항 풀이 (2018학년도)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가닥의 DNA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의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티드가 선형적으로 이어진 사슬로 볼 수 있다. 보통의 경우 <그림 1>과 같이 두 가닥의 DNA가 염기들 간 수소 결합으로 서로 붙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이중나선 구조'라 부른다. 이때 A는 T와, G는 C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온도를 높이면 두 가닥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서 각각 한 가닥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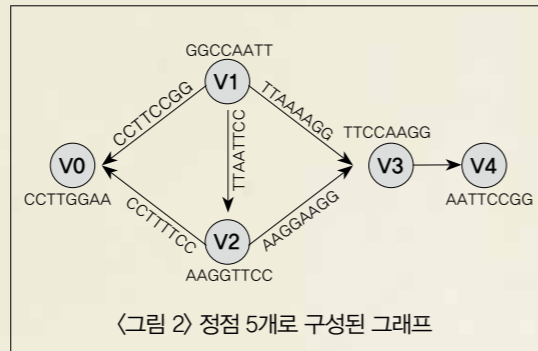


정보과학의 관점에서는 DNA도 정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한 가닥의 DNA 염기서열을 4진 코드로 이루어진 특정 정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A', 'G', 'C', 'T'만을 써서 순서가 정해진 연속된 n개의 빈칸을 채울 때, 총 4n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고 이 중 특정 연속체를 한 가지 정보로 해석할 수 있다.

DNA로 정보를 표현한 후, DNA 분자들 간 화학 반응을 이용하면 연산도 가능하다. 1994년 미국의 정보과학자 에이들먼은 「사이언스」에 DNA를 이용한 연산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로써 'DNA 컴퓨팅'이라는 분야가 열리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 에이들먼이 해결한 것은 정점(예:도시)과 간선(예:도시 간 도로)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에서 시작 정점과 도착 정점이 주어졌을 때 모든 정점을 한 번씩만 지나는 경로를 찾는 문제, 즉 '해밀턴 경로 문제(HPP)'였다. HPP는 정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능한 경로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소위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

DNA 컴퓨팅의 기본 전략은, 주어진 문제를 DNA를 써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한 화학 반응을 수행하여 답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후보를 생성한 후, 생화학적인 실험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찾아내는 것이

다. 에이들먼이 HPP를 해결한 방법을 <그림 2>의 그래프를 통해 단순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V0이 시작 정점, V4가 도착 정점이고 화살표로 간선의 방향을 표시한 그래프를 보여 준다. 즉, V0에서 V1로는 갈 수 있으나 역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 먼저 그래프의 각 정점을 8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한 가닥 DNA 염기서열로 표현한다. 그리고 각 간선을 그 간선이 연결하는 정점의 염기서열로부터 취하여 표현한다. 즉, V0(<CCTTGGAA>)에서 출발하여 V1(<GGCCAATT>)에 도달하는 간선의 경우는 V0의 뒤쪽 절반과 V1의 앞쪽 절반을 이어 붙인 염기서열 <GGAAGGCC>의 상보적 코드 <CCTTCCGG>로 나타낸다. 이렇게 6개의 간선 각각을 DNA 코드로 표현한다.



이제 DNA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이들 코드를 종류별로 다량 합성한다. 이들을 하나의 시험관에 넣고 서로 반응을 시키면 DNA 가닥의 상보적 결합에 의한 이중나선이 형성되는데, 이것을 '혼성화 반응(hybridization)'이라 한다. 혼성화 반응의 결과로 경로, 즉 정점들의 연속체가 생성된다. 시험관 안에는 코드별로 막대한 수의 DNA 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이러한 상호 작용은 대규모로 일어난다. ①이상적인 실험을 가정한다면, 혼성화 반응을 통해 <그림 2> 그래프의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응하는 DNA 분자들이 생성된다. 경로의 예로 (V0, V1), (V1, V2), (V0, V1, V2)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생성된 경로들로부터 해밀턴 경로를 찾아 나가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V0에서 시작하고 V4에서 끝나는지 검사한 후, 그렇지 않은 경로는 제거한다.
- [2단계] 경로에 포함된 정점의 개수가 5인지 검사한 후, 그렇지 않은 경로는 제거한다.
- [3단계] 경로에 모든 정점이 포함되었는지 검사한다.
- [4단계]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취한 경로들이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결정한다.

에이들먼은 각 단계를 적절한 분자생물학 기법으로 구현했다. 그런데 DNA 분자들 간 화학 반응은 시험관 내에서 한꺼번에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요컨대 에이들먼은 기존 컴퓨터의 순차적 연산 방식과는 달리, 대규모 병렬 처리 방식을 통해 HPP의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DNA 컴퓨팅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7. DNA 컴퓨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창시자는 미국의 정보과학자 에이들먼이다.
- ② DNA로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산을 하는 것이다.
- ③ 기본적인 해법은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생성한 후, 여기서 답이 되는 것만을 찾아내는 것이다.
- ④ 기존 컴퓨터 기술의 발상을 전환하여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정보 처리 방식의 개선을 모색했다.
- ⑤ DNA 컴퓨팅을 이용하여 HPP를 풀 때, 간선을 나타내는 DNA의 염기 개수는 정점을 나타내는 DNA의 염기 개수의 두 배다.

[정답] ⑤
[문항 유형] 과학기술 - 주제, 오지, 구조 파악
[난이도] 하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V1, V2, V3, V4)는 정점이 네 개이지만, 에이들먼의 해법 [1단계]에서 걸러진다.
- ② V3에서 V4로 가는 간선으로 한 가닥의 DNA <TTCCTTAA>가 필요하다.
- ③ 정점을 두 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경로는 두 가닥 DNA로 나타내어진다.
- ④ 정점을 세 개 포함하고 있는 경로는 모두 네 개이다.
- ⑤ 해밀턴 경로는 (V0, V1, V2, V3, V4)뿐이다.

[정답] ④
[문항 유형] 과학기술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난이도] 중

9.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DNA 컴퓨팅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정보 처리의 정확도다. DNA 컴퓨팅은 화학 반응에 기반을 두는데, ㉡반응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릇된 연산을 수행하게 된다.

- ㉠. ㉡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림 2> 그래프에서는 에이들먼의 [3단계]가 불필요하다.
- ㉡. 혼성화 반응에서 엉뚱한 분자들이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DNA 코드를 설계하는 것은 ㉡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 ㉢. DNA 컴퓨팅의 원리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를 방지하면서도 대규모 병렬 처리를 통한 문제 해결이 기존 컴퓨터에서 가능하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정답] ③
[문항 유형] 과학기술 -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난이도] 상

[추리논증] 문항 풀이 (2018학년도)

4. <규정>에 따라 <사례>를 판단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 (1)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1주 당 의결권 1개가 인정된다. 다만, 어떤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그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2) 이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될 수 있다.
-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소유 주식 수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출석 주주 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의를 말한다.

<사례>

X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주인데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갑은 발행주식 총수의 34%, 을은 26%, 병은 40%를 갖고 있다. 병은 이 회사의 이사이다. 한편, 병의 이사해임 안건이 주주총회에 상정되었다. 병이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보기]

- ㄱ. 병이 해임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갑, 을, 병이 모두 출석한 경우 갑과 을이 모두 해임에 찬성해야만 병의 해임 안건이 가결된다.
- ㄴ. 병이 해임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갑과 을은 불참하고 병만 출석한 경우 해임에 대한 가부의 결의를 할 수 없다.
- ㄷ. 병이 해임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을은 불참하고 갑과 병은 참석한 경우 갑의 찬성만으로 병의 해임을 가결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①
[문항 유형] 규범 - 원리적용(추리)
[난이도] 중

[추리논증] 문항 풀이 (2018학년도)

27. 다음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면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병렬 프로그래밍에서, 각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일정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되고 공유된다. 프로그램 P1~P4와 이들이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 M1~M4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 P1~P4만이 실행되고 각 프로그램은 M1~M4를 사용한다. 각 프로그램은 적어도 1개 이상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 영역은 없다.
- 메모리 영역은 M1~M4의 순서대로 일렬로 연결되어 있다.
- 전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의 개수의 합은 최대 6이다.
- 어떤 프로그램도 연속되는 2개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할 수 없다.
- P1은 2개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한다.
- P2는 M2를 사용한다.
- P4는 P2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을 1개 이상 공유한다.

[보기]

- ㄱ. 만약 P2가 2개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한다면 P3은 1개의 메모리 영역만을 사용한다.
- ㄴ. M2가 3개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
- ㄷ. 만약 P4가 M4를 사용한다면 P4는 M2도 사용한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 유형] 논리학 · 수학-논리게임(추리)
[난이도] 중

[추리논증] 문항 풀이 (2018학년도)

32. ㉠~㉢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뇌피질에는 운동을 전담하는 영역, 시각을 전담하는 영역 등이 있다. 그럼 대뇌피질 속 이런 전담 영역들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영역의 겹모습이나 구조에 의해 그 전담 영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대뇌피질 영역들 사이의 연결 방식과 대뇌피질 영역과 중추신경계의 다른 영역 사이의 연결 방식에 따라 각 대뇌피질의 전담 영역이 결정된다. 즉 ㉠대뇌피질의 전담 영역은 각 영역이 가진 고유한 물리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과의 연결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

㉡대뇌피질로 들어오는 입력의 유형은 근본적으로 똑같다. 물론 청각과 시각은 그 성질이 다르다.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시각은 빛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리고 시각은 색깔·결·형태를, 청각은 음조·리듬·음색을 지닌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각 감각기관들은 서로 근본적으로 분리된 상이한 실체로 생각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상이한 감각이 관련 기관에서 활동전위로 전환되고 나면, 각 기관이 뇌로 전달한 신호는 모두 똑같은 종류의 활동전위 패턴에 불과해진다. 우리 뇌가 아는 것이라곤 이들 패턴들뿐이며, 우리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가 인식한 외부 세계의 모습은 모두 그런 패턴들로부터 구축된다.

결국, ㉢뇌에 의해 파악된 외부 세계와 몸 사이의 경계는 바뀔 수 있다. 활동전위의 패턴이 전달되면, 뇌는 전달된 패턴들에 정합성을 주는 방식으로 몸의 경계를 파악한다. 이때 패턴이 흔히 몸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유래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다. 패턴이 정합적으로 전달되기만 하면, 뇌는 그 패턴만을 이용해서 그것이 유래된 것을 몸의 일부로 통합하게 된다. 외부 세계와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은 모두 패턴들로부터 구축된 하나의 모형일 뿐이다.

[보기]

- ㄱ. 대뇌피질 전체가 겹모습이나 구조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다는 사실은 ㉠을 강화한다.
- ㄴ. 뇌기능 영상촬영 기법들을 이용하여 특정 과제가 수행될 때 평소보다 더 활성화되는 부위를 검출함으로써 얼굴인식 영역, 수학 영역 등과 같은 특화된 영역들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은 ㉡을 약화한다.
- ㄷ. 다른 감각을 차단한 채, 작은 갈퀴를 손에 쥐고 무엇인가를 건드리도록 한다면 뇌는 작은 갈퀴를 우리 몸의 일부로 여긴다는 사실은 ㉢을 강화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 유형] 과학기술-강화 또는 약화(논증)
[난이도] 중

[논술] 문항 풀이 (2018학년도)

2. <사례>에 나타난 세대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에 따라 제시하시오. (1300~1600자, 60점)

[조건]

- 1. 제시문 (가), (나), (다)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
- 2. 제시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것.

[사례]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의 파급 효과는 21세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문제 되기 시작했으며, 인구 구성비의 불균형으로 인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점차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고령 인구의 비율 증가에 따른 보수화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 사회복지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그 결과 복지 재원이 축소되어 사회적 약자들 사이에서도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투입에서 고령 인구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강화를 우선할 것인지,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투자 및 실업 대책에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시문]

- (가) 가장 대표적인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 다수결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수결의 정당성을 위한 전제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다수결로 결정하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학문적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의 다수결이 정당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다수와 소수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한계로는 소수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의 결정일 것, 즉 다수와 소수가 합리적인 공통의 기초, 근본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결이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가 되어 소수자들의 극단적 저항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 (나) 세대 간의 문제는 정의의 문제이다. 후속 세대가 선행 세대로부터 과중한 부담을 떠안은 경우는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세대 간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선행 세대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몫과 후속 세대를 위해 이행해야 할 본분과 관련해서 합당한 원칙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치 같은 세대의 사람들처럼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까지도 가상적인 협상 주체로 고려하여 정의로운 저축 원칙에 도달할 것이다. 물론 정의로운 저축의 비율은 고정불변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빈곤한 사회라면 높은 저축률이 필요한데도 저축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부유한 사회라면 더 높은 저축률이 기대된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 근접하고 시민의 권리가 충실하게 실현된다면 요구되는 저축은 영(零)에 가깝게 될 것이다.
- (다)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세대 간 불평등'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시각은 청년 문제의 사회 구조적 측면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본래 세대 간 갈등은 히피문화, X세대, Y세대와 같은 청년 문화와 기성 문화의 충돌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그런데 사회 문화적인 범주에 속하는 세대 간 갈등 개념을 경제적 범주로 끌어들이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의 대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청년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다 가난한 것도, 장년 세대에 속한다고 해서 다 부유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보다는 오히려 부의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문항 유형] 복합(인문·사회·규범) — 사례형
[난이도] 중

자주하는 질문

Q 혼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평소에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쓰는 습관을 가지면 기초적인 준비로 충분할 것입니다.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는 법학적성시험 기출문제를 시험 시간 내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고, 여러 번 다시 풀면서 자신이 왜 틀렸는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서 1년 이상 수업을 들었는데, 별로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협의회에서는 법학적성시험 준비생을 위한 시험 기본서를 발간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A 협의회에서는 매년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 해설서는 실제 시험 출제위원들이 작성한 출제근거자료에 기반을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시험을 대비하실 때 유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법학적성시험의 문제 유형별 풀이 원리와 방법을 소개한 『법학적성시험 안내서』도 2016년 7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많은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을 일찍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늦게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괜찮은지요? 시험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요?

A 언제부터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준비가 늦다 해도 열의와 집중력을 가지고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A



LEET 고득점 후기



김동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종강 이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7월에는 학기 중에 풀었던 기출 문제의 잔상을 없애기 위하여 일부러 M/DEET 기출문제와 PSAT 문제를 풀었습니다. M/DEET 기출문제는 언어이해를 준비하기 위함이고, PSAT은 추리논증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답정리는 학기 중과 같이 틀린 문제들 위주로만 하였습니다.

8월에는 리트 기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주 4일 스터디원과 모였으며, 월/수는 기출문제를 함께 풀었고 화/목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 및 오답정리를 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동은입니다. 저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하 리트)에 응시하여 언어이해 영역 표준점수 72.2점(백분위 99.6), 추리논증 영역 표준점수 75.4점(백분위 100)의 성적을 얻었습니다. 리트를 접근하는 방법이 개인마다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에 제 경험이 리트 대비의 왕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리트를 준비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하오니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개괄적인 준비방법

(1) 겨울방학 기간(1월~2월)

저는 법학적성시험을 2017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두 달은 리트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논리학을 익히기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학교생활과의 병행(3월~6월)

당시에 저는 학부 재학 중이고 15학점을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리트 시험에만 전념할 수 없었기에 학기 중(3월~6월)에는 매주 1회 개인적으로 기출 문제를 풀이하였습니다. 그 후 스터디원과 함께 틀린 문제들을 오답정리 하였습니다. 스터디 진행 방식은 추후 서술토록 하겠습니다.

(3) 여름방학 기간(7월~8월)

3. 오답정리의 중요성

개인적으로는 스터디원과 함께 한 오답정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틀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나 방학 때는 모든 문제와 모든 선택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옳은 선택지는 왜 옳은지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였고, 틀린 선택지는 어떻게 고쳐야 옳게 될 것인지 끊임없이 토의하였습니다. 한 문제를 두고 30분씩 토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토의하였기에 아침 9시~10시경에 시작한 토의 스터디가 평균적으로는 4~5시쯤 끝났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분석하는 스터디를 진행하며 제가 놓쳤던 단서들을 발견하기도 하였고, 제 문제풀이법을 다른 스터디원에게 설명하며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답을 찾아내는 것 이상의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 비판적으로 읽기

글을 의심하며,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은 리트 고득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추리논증에서 그

필요성은 강조됩니다.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다가 선택지를 확인하면 그 관점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을 경우 부수적으로 선택지도 함께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시중에 출시된 미스테리, 추리게임들을 어려서부터 즐겨왔던 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리트 시험까지 시간이 넉넉한 학부 1~2학년생들은 게임 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재밌게 체득할 수도 있지 않나 조심스레 제안해봅니다.

5. 정신력 싸움

리트는 멘탈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다보면 컨디션과 시험 스타일에 따라 점수가 들쭉날쭉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 시험 전에 푼 기출문제들의 표준점수 편차가 많게는 20~30점까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에 수험생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성적에 대한 압박감은 이러한 불안감을 가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역설적으로 욕심을 버릴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트는 절대로 다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버릴 문제를 깔끔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면 문제를 버리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는 문제 푸는 리듬과 전반적인 시간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만 해!"라고 생각하기보다 "틀려도 괜찮아~"식의 사고방식으로 시험에 임하시기를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6. 자신만의 문제풀이방법

일반적으로 리트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를 보면 평균적인 준비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였

습니다. 소견으로는 글을 읽는 방식, 문제를 접근하는 근본적인 방식을 바꾸기에는 다소 짧은 준비기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풀이법을 강사나 다른 리트 고수에 맞추기보다는 본인 자신만의 풀이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는 기본적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고, 문제와 선택지를 지문에 앞서 읽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형성된 제 읽기 습관을 단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수하였고 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시험 1개월 이전에는 자신만의 풀이방법을 확정하시고 이를 연마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7. 마무리하며

제가 느꼈던 소감들을 적었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자연법칙과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할 사항은 취하시고, 버릴 사항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리트 점수 오르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오르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기출을 풀었을 때보다 본시험 때 약 20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건승을 빕니다.

로스쿨 개요

» 입학정원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됐다.

구 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 6.3명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확보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 공간 등 구축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 학생정원의 70%를 한 번에 수용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 8만권 이상 확보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35% 이하로 유지
-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율 300% 이상
-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 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하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 · 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함.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전문법률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함.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함.

» 교육과정개요

이론 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구분	내용
공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구분	내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 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구분	내용
법조윤리	법률가의 역할과 윤리에 관해 역사적·비교적 관점도 동원하면서 현재의 법제와 실태를 검토·분석하고, 변호사법·변호사윤리 등의 규정에 관련된 사례도 분석하여 법률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를 기르는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법령, 판례, 학설 등 법률가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탐색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계약서, 유언서, 의견서, 조사보고서 등의 법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침착지도 등을 통해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민사재판,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어링(Lawyring)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취,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됨.

학교명	특성화분야	학교명	특성화분야
강원대	환경법	영남대	공익·인권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경북대	IT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전남대	공익·인권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전북대	동북아법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제주대	국제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중앙대	문화법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법, 기업·금융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서울시립대	조세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 세계화 시대의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3년의 교육과정 중 20개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풍부한 국제적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법학전문대학원은 판사, 검사 등 현직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실습을 통해 연수기관에서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구 분	내 용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1,2,3학년생
실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전문대학원 업무협약체결 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방부 등) •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 기업(삼성, LG, KT 등) • 금융기관 등
실습기간	동계/하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학교별 1학점~2학점 인정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실습식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생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리걸클리닉 소송은 로스쿨 학생들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실제 법률상담과 소송을 수행, 소장, 준비서면 작성 등을 통해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법률상담(건)	1,284	2,147	2,204	2,080
소송참여(건)	235	240	424	334



» 유관기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강의 지원

가. 법원행정처 강의 지원

강의지원은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울권역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외 권역은 법전원 소속지역 법원 지법부장을 파견

- 1학기: 민사재판실무 / 2학기: 형사재판실무
- 총 22명 파견(1학기 11명, 2학기 11명)
- 2010년부터 실시

나. 법무부 강의 지원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당해연도 2학기에서 차년도 1학기 또는 당해연도 1~2학기를 원칙으로 함

- 총 8명 파견(수도권 4명, 지방권 4명)
- 2010년부터 실시

다. 경찰청 강의 지원

1학기 또는 2학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법전원에 파견하여 운영

- 총 8명 파견(1학기 9개교 4명, 2학기 16개교 4명)
- 2014년부터 실시

기관	과목명	파견인원(2017년도)	비고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실무(1학기) 형사재판실무(2학기)	22명	
법무부	검찰실무	8명	
경찰청	경찰실무	8명	

장학금 제도

»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 현황

구분	재학생 수 (명)	총 등록금 (백만원)	장학금 수혜 현황		장학금 지원 현황	
			수혜 인원(명)	비율(%)	금액(백만원)	지급 비율(%)
1학기	6,140	43,864	3,248	52.9%	15,352	35.0%
2학기	6,069	43,238	3,310	54.5%	15,069	34.9%
계	12,209	87,102	6,558	53.7%	30,421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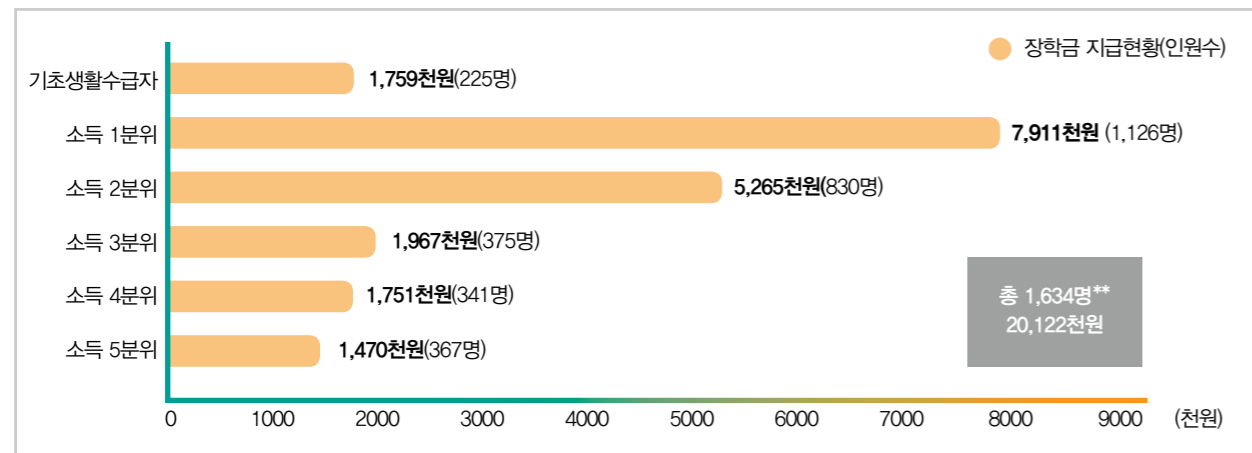
'17학년도 재학생 12,209명(1학기 6,140명, 2학기 6,069명) 가운데 6,558명(1학기 3,248명, 2학기 3,310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 재학생 대비 등록금 수혜율은 53.7%로 나타났다.

• 총 등록금액 871억원 중 장학금 지급액은 304억원으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34.9%이다.

»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세부 현황

구분	수혜 인원 (명)	총 지원액 (백만원)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기타 자율 장학금		
			인원 (명)	금액 (백만원)	비율 (%)	인원 (명)	금액 (백만원)	비율 (%)
1학기	3,248	15,352	1,944	11,777	76.7%	1,304	3,575	23.3%
2학기	3,310	15,069	1,985	11,607	77.0%	1,325	3,462	23.0%
계	6,558	30,421	3,979	23,384	77.0%	2,579	7,037	23.0%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를 판정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



** 1·2학기 중복지원 인원 등을 감안하여, 합산한 인원을 2로 나눈 평균 인원수로 산정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총액(304억원) 중 77.0%인 234억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기초~소득 3구간 전원(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 전체 25개 법전문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 모든 법전문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문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 이외에도 각 법전문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보도자료, 2018-02-27 中

<장학금 지원 순위>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참고] 전문대학원별 연간 1인당 등록금 및 장학금 비교(2015년)

단위:천원 / %

구분		등록금	장학금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실질 등록금
법학전문대학원	최고	21,892	10,146	56.1	14,398
	평균	15,694	6,242	39.0	9,452
	최저	9,648	2,472	23.8	5,155
의학전문대학원	최고	23,672	8,004	39.3	18,884
	평균	15,869	3,227	19.7	12,642
	최저	9,830	1,117	9.4	8,253
경영전문대학원	최고	40,000	18,196	92.1	39,402
	평균	24,445	5,896	27.7	18,594
	최저	16,140	598	1.5	1,554

특별전형 / 지역균형인재 선발

» 특별전형 제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사회적·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취약 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출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 1,307명(2009년~2018년)
- 선발현황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139명 (6.57%)	139명 (6.57%)	137명 (6.51%)

- 장학금제도 : 법전원은 매년 특별전형 제도로 선발한 학생(130여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 선발인원 : 각 교 정원의 7% 이상
[2018학년도까지는 5%였으나, 2019학년도부터 상향됨]
- 선발대상 :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여건이 열악한 계층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에 한함)
경제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 ·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강원, 제주(2개교) : 입학정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정원의 20% 이상 선발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180명	166명	174명	157명

변호사 시험

»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정

»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 변호사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로스쿨 졸업생의 사회 진출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취업률

기관	취업인원	기관	취업인원
법원	71명(5.2%)	국가기관	49명(3.6%)
검찰	39명(2.8%)	지방자치단체	7명(0.5%)
군법무관	83명(6.0%)	공공단체	7명(0.5%)
공익법무관	145명(10.5%)	공기업	26명(1.9%)
법무법인	568명(41.3%)	사기업	116명(8.4%)
공동법률사무소	133명(9.7%)	기타	22명(1.6%)
단독사무소	109명(7.9%)	총계	1,375명



정부법무공단 김민형 변호사(경북대학교 로스쿨)

“정부법무공단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고문을 맡기는 기관도 많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행정, 사회문화, 국토산업부, 조세팀 등 의뢰기관의 업무에 따라서 분류되고, 분류된 업무에 따라서 팀이 나눠지는데, 제 경우에는 1년차 때는 국토산업부팀에 있었고, 현재는 사회문화팀에 있습니다. 특화된 조세팀을 제외하고는, 담당기관에서 위임하는 사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송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특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담당 기관들의 송무, 자문 등 여러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해당 기관의 주된 업무와 관련 법령 등을 파악할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더욱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광장 박수연 변호사(경희대학교 로스쿨)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중에서는 의약품 특허 관련 분쟁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의약품 특허소송의 경우 기본적인 법적 실력도 매우 중요하지만, 분쟁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완벽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학이나 화학을 전공한 변호사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팀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이 팀에서도 지적재산권팀처럼 다양한 유형의 소송(민·형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과 더불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규제 이슈와 관련한 법적 자문을 하는 업무도 맡고 있어요.”



마포구청 법무팀장 조원의 변호사(연세대학교 로스쿨)

“마포구청 법무팀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의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고, 또 각 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안건을 처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무팀에서는 민사 행정 송무 및 행정심판 등 쟁송에 관한 사항, 법률자문 등 전통적인 성무 관련 법률 업무와 조례 등 자치법규 심사와 규제개혁, 지방의회 협력업무, 마을변호사 등 지방의회와 대민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재판연구원, 판사, 검사의 임용

구분	재판연구원	판사	검사
임용자격 및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법원조직법 제53조의2 제3항) · 2017년 7월 이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거나 2018년 1~2월 수료 예정인 사람 · 2018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문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임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종합하여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품, 능력, 적성,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 ※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
전형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9월) · 필기전형 및 인성검사(9월) · 면접전형(11월) · 최종 합격자 발표(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6월) · 법률서면 작성 평가(6월) · 법관인사위원회 1차 중간심사(7월) · 실무능력 평가 면접(7월) · 인성역량 평가 면접(7월) · 법관인사위원회 2차 중간심사(8월) · 최종면접(9월)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9월)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심사(8월) ·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10~11월) · 임용후보자 통보(11~12월)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①



박정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자기소개서는 여러 사람에게 침삭 받아야

자기소개서는 로스쿨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므로 그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되 단점은 잘 드러나지 않은 방식으로 요령껏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면 어색한 부분이나 헛점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면접의 핵심은 일관된 주장과 힘 있는 논리

면접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책에서 하나의 주제를 고른 뒤 모의면접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면접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 힘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되 무리한 논리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리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리트 기출 문제를 구해서 매일 시간에 맞춰 풀어보고, 틀린 부분은 해설을 보며 답을 맞춰보았다. 그 후 모든 문제를 다시 보며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다보면 답이 도출된 이유를 알게 되고, 결론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질문과 각 제시된 지문에 핵심단어 또는 문장에 살짝 표시를 해 두었다. 이는 ①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틀리거나, ②본문과 변형된 선택지 간 내용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연습이다.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지기

추리논증의 경우 점수를 올리기 매우 어려웠고, 풀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문제를 섞은 후 반복해서 풀었고, 잘 맞추는 문제와 자주 틀리는 문제를 구분하고 유형화하여, 잘 풀지 못하는 문제에는 따로 플래그를 붙여 두었다. 리트 시험 당일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만 가져가서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제의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에 집중했다. 하지만 강의나 스터디 등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입학한 후의 청사진을 제시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최대한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고, 과거의 수상경력이나 대외 활동 등 해냈던 일보다는 로스쿨에 입학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연차별, 학기별로 작성했다.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원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 오히려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김우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9기

시험의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야

언어영역의 경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으면 지문에 나오는 단어의 개념과 범위, 유사하지만 다른 단어와의 차이,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추리논증은 논리학 문제, 논증 문제, 수리추리, 논리게임 문제 모두 풀이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을 익힌 후 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꼼꼼히 분석해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리트 시험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말 것!

자기소개서와 면접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의 역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트 시험 이후에도 너무 긴장을 풀지 말고 지망학교의 양식에 맞춰 자소서를 여러 번 고치고, 타인의 의견을 듣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면접의 경우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마련하면서 차분히 준비해 놓을 것을 권한다.



조감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강점에 집중하라

법전원 입시에서는 학점(GPA), 법학적성시험(LEET), 영어 성적(TOEIC 등) 이 세 가지 요소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합격자들의 대부분이 무엇 하나 빠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점수를 잃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 다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준비도 있을 수 없으므로 부족한 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입학의 기회는 1년에 단 두 장의 카드뿐

입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지원 가능한 학교가 '단 두 곳'뿐이라는 점이다. 1년에 단 한번 있는 기회만큼, '안정지원'을 고려해 볼 것을 추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오래 준비한다고 자신의 스펙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로스쿨 합격 노하우 ②



김윤정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기 전 과학 기본 교과서나 네이버 지식백과를 읽고, MEET/DEET 문제를 풀며 잘 모르는 영역의 지문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언어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관리라는 판단 아래, 지문마다 7분씩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이 지나면 과감하게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함으로써,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연습했습니다.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며 읽은 합격 수기들이 저의 진학에 큰 도움이 되었기에, 저의 경험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합격 수기를 남깁니다.

II. 수험생활

(1) 학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미 졸업을 한 지 오래된 상황이라 학점을 보완할 수가 없었습니다. 3.4/4.3(환산점수 90 초반) 정도의 학점이었는데, 법전원 입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이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학부생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최대한 학점을 끌어올리고, 법 관련 과목을 들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LEET

2-1) 언어영역

언어영역의 경우는 낯선 지문(과학, 정치)을 만났을 때 정답

2-2) 추리영역

추리영역은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던 부분이었기에, 언어영역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실제로 시험에서 점수가 많고 생각합니다.

첫째,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수험자분들이 이미 지겹도록 들으신 이야기일 것이 분명하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강조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인강, 스터디, 그리고 책을 활용해 5회 이상 최근 5개년을 중심으로 기출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기출문제 시 단순히 정오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문과 정답 선지 그리고 틀린 선지까지의 구성 방법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물론 수험자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와 법전협에서 나온 기출문제 해설집, 그리고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둘째, 오답노트의 작성입니다. 오답노트는 기출을 중심으로 제 나름의 분류 체계를 세운후 (모순 발견 문제, 강화 약화 문제, 내용 일치, 논리게임 등) 저의 약점 발견과 사고 과정 교정에 활용했습니다. 오답노트를 쓸 때는 제 사고의 과정 중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자 나는 ~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

다는 것을 기록한 후, 앞으로 ~문제에서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적어서 생각의 흐름 자체를 교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주일 전 오답노트에 기록한 오류 부분들을 모두 모아서 A4 용지에 정리한 후 매일 읽으며 시험에 동일한 실수를 방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셋째, PSAT 문제 분석입니다. 기출을 분석한 후 7월쯤 낯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 PSAT 공부를 했습니다. PSAT 문제를 전부 풀지는 않았고, PSAT 중 LEET 추리영역과 비슷한 문제를 모아둔 시중 문제집을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약한 영역만 골라서 풀었고, 실제로 2018 추리 영역의 경우 PSAT과 비슷한 소재, 변형된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출 분석이 끝나고 난 후 PSAT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추리 영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3) 논술

논술의 경우 시험 한 달 전 기출문제를 뽑아 일주일에 한 번 제 나름의 논리로 글을 쓰는 작업을 연습해보는 정도였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잘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3) 토익

저는 미리 보유한 점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LEET 시험을 보고 난 후 몰아서 토익 시험을 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피로감을 유발 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의 경우 스터디 사람들과 모호하거나 잘못된 표현은 없는지, 더 나은 소재는 없는지 등을 논의하며 5회에 걸

쳐 첨삭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저의 경우 장단점, 공부계획 등을 변호사 시험 합격과 연관시키고,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5) 면접

스터디 초기에는 인권법 책과 황정현 변호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지식을 기를 수 있게끔 연습했으며, 자소서 제출 이후에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했습니다. 학교별로 문제 형식이 다르지만 중복되는 주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지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문제들도 스터디원들과 함께 연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II. 마치며

지원 전, 법학전문대학원을 지원하기에는 나이가 많다, 학점이 낮다 등 여러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많아 지원을 많이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 후 앞두고 느낀 것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처럼 법전원 입시에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혹시 부족한 정량, 정성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입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1. 시험의 성격 및 목적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2019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3. 시험 일시 및 장소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18. 7. 15.(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 수험표 출력 시(6.28.~7.15.) 배정된 학교 확인

4.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지선다형
점심 시간			12:50 ~ 13:50	
3	논술	2	14:00 ~ 15:50 (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16. 12. 1.(목)에 발표한'법학적성시험 개선계획'참조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5. 출제 기본방향

-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 라.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6.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9일 09시부터 6월 7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eet.or.kr>]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 나. 응시수수료
 -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18년 6월 5일 ~ 2018년 6월 7일(6. 7.(목) 우편소인까지 인정)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만 인정, 방문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888-2034)

•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④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①~⑥ 중 택 1>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① 수급자 증명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라.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접수마감일 6월 7일까지 : 100%(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1차-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8일~14일): 60%(148,800원)

2차-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5일~28일): 50%(124,000원)

3차-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9일~7월 11일): 40%(99,200원)

시험 3일 전부터(7월 12일~): 0%(반환불가)

7.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8월 23일(목)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채점함.

8.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신체적 장애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9.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미디어플레이어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p>〈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p> <p>-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p> <p>-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피커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p> <p>-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p> <p>-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p>
---	---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딱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지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안정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10.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점수 취소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그 밖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 개인의 의료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11.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참조하기 바람.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응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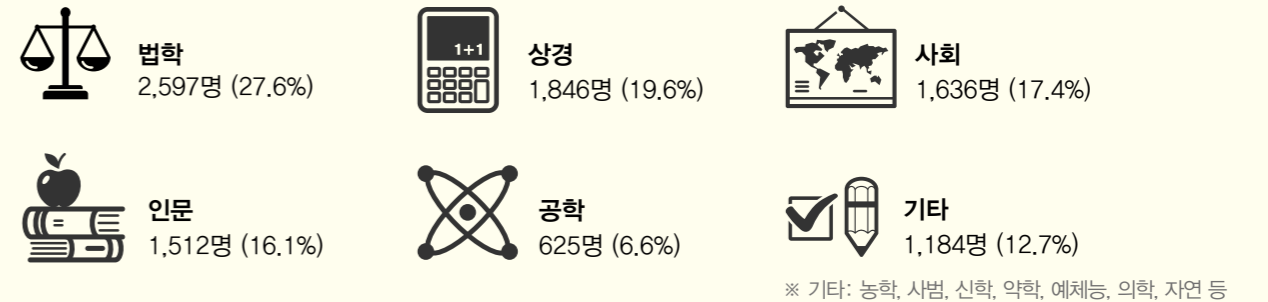
»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지원자 / 응시자

언어이해	전체지원자	10,058 명(100%)	응시자	9,400 명(93.5%)
추리논증	전체지원자	10,058 명(100%)	응시자	9,369 명(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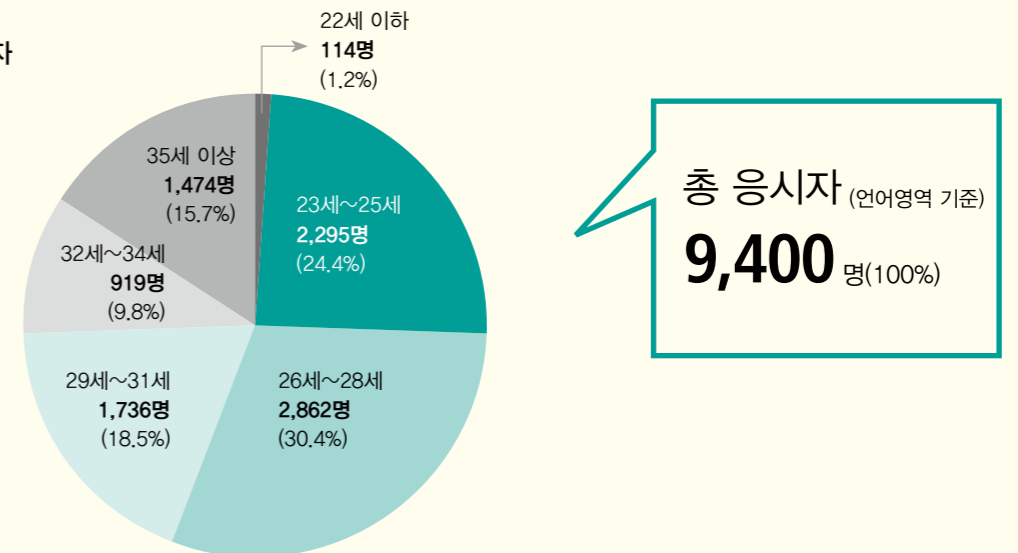
» 성별 응시자



» 계열별 응시자



» 연령별 응시자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점수분포

※ 언어이해 영역의 표준점수 구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0.0 이상 ~ 75.0 미만	78	1.0	1.0
65.0 이상 ~ 70.0 미만	428	5.3	6.2
60.0 이상 ~ 65.0 미만	671	8.3	14.5
55.0 이상 ~ 60.0 미만	1,468	18.1	32.6
50.0 이상 ~ 55.0 미만	1,722	21.2	53.9
45.0 이상 ~ 50.0 미만	1,125	13.9	67.8
40.0 이상 ~ 45.0 미만	1,285	15.9	83.6
35.0 이상 ~ 40.0 미만	758	9.4	93.0
30.0 이상 ~ 35.0 미만	279	3.4	96.4
25.0 이상 ~ 30.0 미만	220	2.7	99.1
20.0 이상 ~ 25.0 미만	60	0.7	99.9
15.0 이상 ~ 20.0 미만	9	0.1	100.0
10.0 이상 ~ 15.0 미만	1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1	0.0	100.0
계	8,105	100.0	

※ 추리논증 영역의 표준점수 구간별 빈도, 비율 및 누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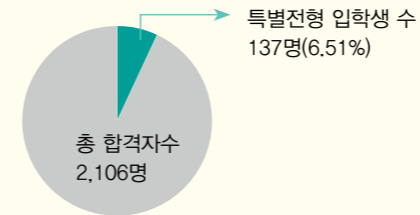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5.0 이상 ~ 80.0 미만	5	0.1	0.1
70.0 이상 ~ 75.0 미만	100	1.2	1.3
65.0 이상 ~ 70.0 미만	284	3.5	4.8
60.0 이상 ~ 65.0 미만	937	11.6	16.4
55.0 이상 ~ 60.0 미만	1,626	20.1	36.5
50.0 이상 ~ 55.0 미만	1,157	14.3	50.8
45.0 이상 ~ 50.0 미만	1,725	21.3	72.1
40.0 이상 ~ 45.0 미만	831	10.3	82.3
35.0 이상 ~ 40.0 미만	818	10.1	92.5
30.0 이상 ~ 35.0 미만	392	4.8	97.3
25.0 이상 ~ 30.0 미만	128	1.6	98.9
20.0 이상 ~ 25.0 미만	83	1.0	99.9
15.0 이상 ~ 20.0 미만	7	0.1	100.0
10.0 이상 ~ 15.0 미만	1	0.0	100.0
계	8,094	100.0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5.0 이상 ~ 80.0 미만	2	0.0	0.0
70.0 이상 ~ 75.0 미만	132	1.4	1.4
65.0 이상 ~ 70.0 미만	358	3.8	5.2
60.0 이상 ~ 65.0 미만	1,287	13.7	18.9
55.0 이상 ~ 60.0 미만	1,296	13.8	32.7
50.0 이상 ~ 55.0 미만	1,540	16.4	49.1
45.0 이상 ~ 50.0 미만	2,071	22.0	71.1
40.0 이상 ~ 45.0 미만	1,088	11.6	82.7
35.0 이상 ~ 40.0 미만	932	9.9	92.6
30.0 이상 ~ 35.0 미만	369	3.9	96.5
25.0 이상 ~ 30.0 미만	217	2.3	98.9
20.0 이상 ~ 25.0 미만	70	0.7	99.6
15.0 이상 ~ 20.0 미만	28	0.3	99.9
10.0 이상 ~ 15.0 미만	0	0.0	99.9
5.0 이상 ~ 10.0 미만	10	0.1	100.0
계	9,400	100.0	

표준점수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75.0 이상 ~ 80.0 미만	7	0.1	0.1
70.0 이상 ~ 75.0 미만	80	0.9	0.9
65.0 이상 ~ 70.0 미만	468	5.0	5.9
60.0 이상 ~ 65.0 미만	1,163	12.4	18.3
55.0 이상 ~ 60.0 미만	1,150	12.3	30.6
50.0 이상 ~ 55.0 미만	2,029	21.7	52.3
45.0 이상 ~ 50.0 미만	1,917	20.5	72.7
40.0 이상 ~ 45.0 미만	954	10.2	82.9
35.0 이상 ~ 40.0 미만	926	9.9	92.8
30.0 이상 ~ 35.0 미만	347	3.7	96.5
25.0 이상 ~ 30.0 미만	257	2.7	99.2
20.0 이상 ~ 25.0 미만	61	0.7	99.9
15.0 이상 ~ 20.0 미만	7	0.1	100.0
10.0 이상 ~ 15.0 미만	3	0.0	100.0
계	9,369	100.0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 총 합격자수 & 특별전형 입학생 수



▶▶ 성별

남성 1,199명(56.93%), 여성 907명(43.07%)

▶▶ 자교출신 VS. 타교출신

자교출신 476명(22.60%), 타교출신 1,630명(7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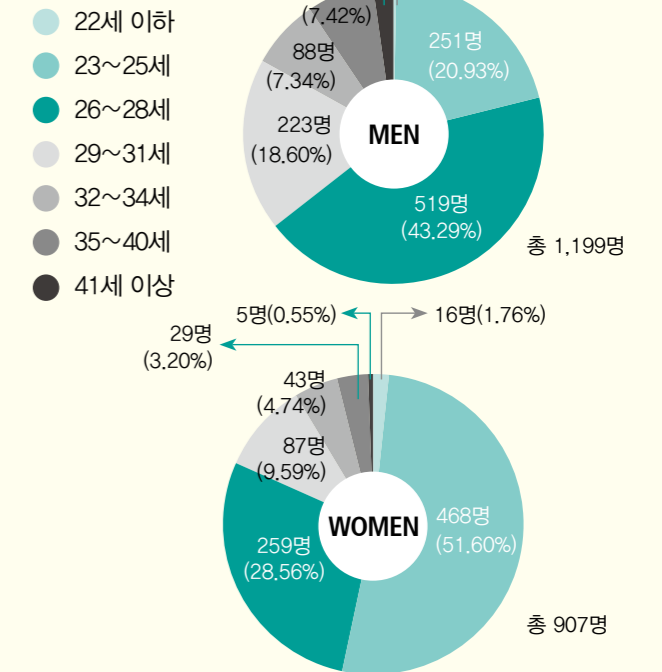
▶▶ 법학사 VS. 비법학사

법학사 440명(20.89%), 비법학사 1,666명(79.11%)

▶▶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법학계열	251	154	405	24	11	35	275	165	440	20.89
상경계열	316	168	484	19	7	26	335	175	510	24.22
사회계열	217	244	461	25	11	36	242	255	497	23.60
인문계열	136	169	305	12	9	21	148	178	326	15.48
공학계열	79	23	102	5	3	8	84	26	110	5.22
사범계열	28	46	74	2	2	4	30	48	78	3.70
자연계열	28	21	49	0	1	1	28	22	50	2.37
예체능계열	10	8	18	1	0	1	11	8	19	0.90
의학계열	9	5	14	0	0	0	9	5	14	0.66
약학계열	2	6	8	0	0	0	2	6	8	0.38
농학계열	3	2	5	0	0	0	3	2	5	0.24
신학계열	2	1	3	0	1	1	2	2	4	0.19
기 타	26	14	40	4	1	5	30	15	45	2.14
계	1,107	861	1,968	92	46	138	1,199	907	2,106	100

▶▶ 연령별



2018학년도 법전원별 1단계 전형요소 실질반영률

구분	1단계 전형					
	정량평가					정성평가
	LEET (언어/추리)	학부 성적	어학 성적	LEET(논술)	소계	서류 심사
강원대	47.0%	31.0%	P/F		78.0%	22.0%
건국대	56.92%	8.54%	20.88%		86.33%	13.67%
경북대	36.70%	23.30%	20.0%		80.0%	20.0%
경희대	42.86%	28.57%	P/F		71.43%	28.57%
고려대	42.29%	42.29%	P/F	P/F	84.58%	15.42%
동아대	83.33%	4.17%	12.50%		100.0%	
부산대	53.20%	42.60%	4.20%		100.0%	
서강대	50.0%	16.70%	8.30%		75.0%	25.0%
서울대	50.0%	50.0%	P/F		100.0%	
서울시립대	25.42%	33.90%	23.73%		83.05%	16.95%
성균관대	41.10%	17.80%	13.70%	서류평가 시 고려	72.60%	27.40%
아주대	48.10%	28.80%	23.10%		100.0%	
연세대	27.78%	27.78%	16.67%	서류평가 시 고려	72.22%	27.78%
영남대	58.80%	3.90%	2.0%		64.70%	35.30%
원광대	59.0%	18.0%	24.0%		100.0%	
이화여대	33.33%	22.22%	16.67%		72.22%	27.78%
인하대	40.0%	20.0%	10.0%		70.0%	30.0%
전남대	44.30%	17.72%	7.60%		69.62%	30.38%
전북대	47.0%	23.0%	15.0%		85.0%	15.0%
제주대	50.0%	33.33%	16.67%		100.0%	
중앙대	26.67%	26.67%	19.98%		73.33%	26.67%
충남대	34.28%	28.57%	28.57%		91.42%	8.57%
충북대	27.80%	27.80%	27.80%		83.40%	16.60%
한국외대	39.41%	18.47%	15.77%	P/F	73.65%	26.35%
한양대	42.0%	24.0%	10.0%		76.0%	24.0%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경쟁률

※ 원서접수기간 : 2017. 10. 10.(화) 09:00 ~ 13.(금) 18:00까지

대학명	모집정원							지원현황							경쟁률(%)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8	2	40	40			-	194	10	204	204				5.11	5.00	5.10	5.10
건국대	38	2	40			-	40	131	6	137			-	137	3.45	3.00	3.43				3.43
경북대	57	3	60	56	4	60	120	259	17	276	275	16	291	567	4.54	5.67	4.60	4.91	4.00	4.85	4.73
경희대	57	3	60			-	60	385	22	407			-	407	6.75	7.33	6.78				6.78
고려대				114	6	120	120				334	32	366	366				2.93	5.33	3.05	3.05
동아대	38	2	40	38	2	40	80	330	18	348	350	14	364	712	8.68	9.00	8.70	9.21	7.00	9.10	8.90
부산대	66	4	70	46	4	50	120	232	19	251	170	20	190	441	3.52	4.75	3.59	3.70	5.00	3.80	3.68
서강대	19	2	21	18	1	19	40	133	8	141	148	5	153	294	7.00	4.00	6.71	8.22	5.00	8.05	7.35
서울대	141	9	150			-	150	386	43	429			-	429	2.74	4.78	2.86				2.86
서울시립대	25	5	30	20		20	50	184	33	217	152		152	369	7.36	6.60	7.23	7.60		7.60	7.38
성균관대				114	6	120	120				443	24	467	467				3.89	4.00	3.89	3.89
아주대	24	2	26	23	1	24	50	161	12	173	171	7	178	351	6.71	6.00	6.65	7.43	7.00	7.42	7.02
연세대				114	6	120	120				413	20	433	433				3.62	3.33	3.61	3.61
영남대	33	2	35	33	2	35	70	278	15	293	310	15	325	618	8.42	7.50	8.37	9.39	7.50	9.29	8.83
원광대	30		30	25	5	30	60	316		316	264	28	292	608	10.53		10.53	10.56	5.60	9.73	10.13
이화여대				94	6	100	100				382	33	415	415				4.06	5.50	4.15	4.15
인하대	22	3	25	25		25	50	159	18	177	209		209	386	7.23	6.00	7.08	8.36		8.36	7.72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10	31	241	271		271	512	4.12	3.44	4.02	4.52		4.52	4.27
전북대	37		37	37	6	43	80	221		221	240	19	259	480	5.97		5.97	6.49	3.17	6.02	6.00
제주대	19	1	20	19	1	20	40	107	5	112	97	6	103	215	5.63	5.00	5.60	5.11	6.00	5.15	5.38
중앙대	46	4	50			-	50	288	19	307			-	307	6.26	4.75	6.14				6.14
충남대	50		50	45	5	50	100	202		202	193	21	214	416	4.04		4.04	4.29	4.20	4.28	4.16
충북대	40		40	26	4	30	70	214		214	129	15	144	358	5.35		5.35	4.96	3.75	4.80	5.11
한국외대	17	3	20	30		30	50	86	18	104	183		183	287	5.06	6.00	5.20	6.10		6.10	5.74
한양대	95	5	100			-	100	574	25	599				599	6.04	5.00	5.99				5.99
합계	905	59	964	975	61	1,036	2,000	4,856	309	5,165	4,928	285	5,213	10,378	5.37	5.24	5.36	5.05	4.67	5.03	5.19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2019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5월 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계]	2 단계 [합계]	선발 방법				
				1단계	2단계			
강원대 [환경법]	40 (0/4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70점 [합계 : 320점]	• 1단계 성적 : 32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42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나군)	• 비법학사 : 20명 이상 • 타 대학 : 24명 이상 • 지역인재 : 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3)250- 6509
건국대 [부동산]	40 (40/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 서류심사 : 15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300% 이상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가군)	• 비법학사 : 1/3명 이상 • 타 대학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450- 3620
경북대 [IT]	120명 (60/60)	• LEET성적 : 15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면접 : 5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30점 • 면접성적 : 7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7명 (‘가/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950- 5452 입학 관리처 : 053)950- 2765
경희대 [글로벌 기업법무]	60명 (60/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300점]	• 1단계 성적 : 3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4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비법학사 : 21명 이상 • 타 대학 : 21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961- 9218,9
고려대 [국제법무 (Global Legal Practice)]	120 (0/120)	• LEET성적 : 200점 • 학부성적 : 200점 • 자기소개서 : 100점 • 어학성적 : P/F [합계 : 500점]	• 1단계 성적 : 500점 • 면접성적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600점]	정원의 3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90- 1428
동아대 [국제 상거래] [국제 상거래]	80 (40/40)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200점 [합계 : 600점]	• 1단계 성적 : 600점 • 서류심사 : 2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28명 이상 • 타 대학 : 28명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1)200- 8581 입학 관리과 : 051)200- 6314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계 [합계]	2 단계 [합계]	선발 방법				
				1단계	2단계			
부산대 [금융·해운 통상법]	120 (70/50)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자기소개서 : 20점 • 논술성적 : 10점 (‘가군만) • 면접성적 : (‘가군 : 10점, ‘나군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8명 (군별 4명씩)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1)510- 1575 입학 관리과 : 051)510- 1245
서강대 [기업법 (금융법)]	40 (21/19)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30점 • 어학성적 : 20점 • 자기소개서 및 기타 서류성적 : 20점 [합계 : 100점]	• 1단계 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2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4명 이상 • 타 대학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705- 7833, 8790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150 (150/0)	『일반전형』 • 어학성적 : P/F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합계 : 200점]	『일반전형-2단계』 • 1단계 성적 : 200점 • 정성평가 : 50점 『일반전형-3단계』 • 면접 및 구술고사 : 50점 [합계 : 300점]	정원의 250% 선발	『2단계』정원의 150% 이내에서 선발 『3단계』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이상 (‘가군)	• 비법학사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80- 7539
서울시립대 [조세법]	50 (30/20)	• LEET성적 : 15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75점]	• 1단계 성적 : 75점 • 논술성적 : 5점 • 면접 및 구술고사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특별전형 400%)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6490- 5070
성균관대 [기업법무]	120 (0/1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5점]	• 1단계 성적 - 85점 • 면접성적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760- 0922
아주대 [중소기업 법무]	50 (26/24)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70점]	• 1단계 성적 : 70점 • 서면평가 : 15점 (서류10점/논술5점) • 대면평가 : 15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2명 ‘나군: 1명)	• 비법학사 : 1/3명 이상 • 타 대학 : 1/3명 이상	법전원 교학팀 : 031)219- 1667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연세대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의료과학 기술]	120 (0/120)	『일반전형』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5점 • 어학성적 : 15점 • 서류심사 : 25점 [합계 : 90점]	『일반전형』 • 1단계 합계점수 : 9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2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LEET 논술은 서류평가에서 검토함. • TOEFL은 IBT만 인정하며 외국에서 응시 한 TOEIC 은 인정하지 않음.	법전원 행정실 : 02)2123- 3801
		『특별전형』 • LEET성적 : 25점 • 대학성적 : 25점 • 어학성적 : P/F • 서류심사 : 25점 [합계 : 75점]	『특별전형』 • 1단계 합계점수 : 75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85점]					
영남대 [공익 인권법]	70 (35/35)	• LEET성적 : 3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00점]	• 1단계 성적 : 70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200점 • 기타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군별 2명씩)	• 비법학사 : 24명 이상 • 타 대학 : 49명 이상 • 지역인재 : 2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53)810- 2693
원광대 [의생명 분야]	60 (30/30)	• LEET성적 : 4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5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22명 이상 • 타 대학 : 29명 이상 • 지역인재 : 12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850- 5083 입학 관리처 : 063)850- 5264
이화여대 [생명 의료법, Gender법]	100 (0/100)	• LEET성적 : 60점 • 대학성적 : 40점 • 어학성적 : 30점 • 서류심사 : 50점 [합계 : 180점]	• 1단계 성적 : 180점 • 논술성적 : 10점 • 심층면접 : 10점 [합계 : 200점]	정원의 400% 이내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34명 이상 • 타 대학 : 3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3277- 2733,4
인하대 [지적 재산권, 물류법]	50 (25/25)	• LEET성적 : 250점 • 대학성적 : 2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200점 [합계 : 750점]	• 1단계 성적 : 75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150점 [합계 : 1,000점]	정원의 50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각 군별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32)860- 7913 입학 기획팀 : 032)860- 9223
전남대 [공익 인권법]	120 (60/6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논술성적 : 50점 • 면접성적 : 5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9명 (‘가군)	• 비법학사 : 40명 이상 • 타 대학 : 40명 이상 • 지역인재 : 2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2)530- 2208 입학과 : 062)530- 4738

대학명 [특성화 분야]	모집인원 (‘가군/ '나군)	전형방법 및 내용				특별 전형 (모집군, 인원)	비 고	문의안내 (연락처)
		1 단 계 [합 계]	2 단 계 [합 계]	선 발 방 법				
				1단계	2단계			
전북대 [동북아법]	80 (37/43)	• LEET성적 : 30점 • 학부성적 : 15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10점 [합계 : 65점]	• 1단계 성적 : 65점 • 논술성적 : 15점 • 면접성적 : 2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6명 (‘나군)	• 비법학사 : 1/3 이상 • 타 대학 : 1/3 이상 • 지역인재 : 1/5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3)270- 2661 입학 관리과 : 063)270- 4744
제주대 [국제법무]	40 (20/2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합계 : 60점]	• 1단계 성적 : 60점 • 면접성적 : 40점 - 서류심사 : 20점 - LEET논술 : 4점 - 구술고사 : 16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2명 (‘가/ '나군)	• 비법학사 : 35% 이상 • 타 대학 : 35% 이상 • 지역인재 : 1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64)754- 2992 입학 관리과 : 064)754- 3994
중앙대 [문화법]	50 (50/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 기타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 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6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820- 5423~5
충남대 [지적 재산권]	100 (50/50)	• LEET성적 : 12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30점 [합계 : 350점]	• 1단계 성적 : 350점 • 논술성적 : 20점 • 면접성적 : 40점 • 기타 [합계 : 410점]	정원의 25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나군)	• 비법학사 : 42명 이상 • 타 대학 : 60명 이상 • 지역인재 : 20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2)821- 8507 입학과 : 042)821- 5028
충북대 [과학기술 법무]	70 (40/30)	• LEET성적 : 100점 • 학부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60점 [합계 : 360점]	• 1단계 성적 : 360점 • 논술성적 : 100점 • 면접성적 : 4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3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지역인재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4명 (‘나군)	• 비법학사 : 25명 이상 • 타 대학 : 25명 이상 • 지역인재 : 14명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43)261- 2615 입학과 : 043)261- 3303
한국외대 [국제지역]	50 (20/30)	• LEET성적 : 100점 • 대학성적 : 100점 • 어학성적 : 100점 • 서류심사 : 100점 • 논술성적 : P/F [합계 : 400점]	• 1단계 성적 : 400점 • 면접성적 : 100점 [합계 : 500점]	정원의 400%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3명 (‘가군)	• 비법학사 : 50% 이상 • 타 대학 : 50% 이상	학사 지원팀 : 02)2173- 2461~3 FAX : 02)2173- 2966
한양대 [국제소송, 지적재산· 정보· 공익· 소수자인권]	100 (100/0)	• LEET성적 : 30점 • 대학성적 : 20점 • 어학성적 : 10점 • 서류심사 : 20점 [합계 : 80점]	• 1단계 성적 : 80점 • 논술성적 : 10점 • 면접성적 : 10점 [합계 : 100점]	정원의 350% 내외 선발	총점순위 (단, 비법학사, 타대학 쿼터충족을 위한 변동가능)	5명 (‘가군)	• 비법학사 : 40% 이상 • 타 대학 : 40% 이상	법전원 행정실 : 02)2220- 2770 입학처 : 02)2220- 0078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 기초~소득 3구간 전원(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17년 42억원 대비 5억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그밖의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 확대 추진) 의무적으로 선발하여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 취약계층 선발 비율(「법전원법 시행령」 개정 중) : (현행) 5% 이상 → (개선) 7% 이상
 -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 대상자 산정 시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구간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 2018년도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구간 파악은 3월 중 완료 예정

<장학금 지원순위>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배려 대상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한편,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밝히며,
- “앞으로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및 서민 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로스쿨 학생 6명 중 1명 전액장학금 받는다

저소득층 1천여명 등록금 전액 지원...600명은 70% 이상 지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명 가운데 1명꼴로 전액장학금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저소득 로스쿨 학생을 위해 2018년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많은 47억원가량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로스쿨은 학생 소득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2018년 1학기 기준 월 소득 인 정액 316만3천441원 이하)에게는 등록금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의 소득·재산과 가구 소득, 사회보 장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올해는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포함) 가운데 소득 3구간 이하인 1천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25개 로스쿨의 입학정원이 2천명, 재학생이 6천명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6명 가운데 1명 꼴로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덜어 준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 가운데 600명가량은 등록금의 70%~90%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생략>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을 늘림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과 서민층 학생들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8-02-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6/0200000000AKR20180226066600004.HTML?from=search>

법학적성시험 문제 해설 (2014 ~ 2018)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이 제공하는 최신 5년분 기출문제 해설서



구입처: 전국 유명 온·오프라인 서점

법학적성시험 안내서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이 소개하는 문제 유형별 풀이 원리와 방법




법학적성시험 (LEET)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됩니다.

설명회 순서

- 01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및 입학전형 소개
- 02 법학적성시험(LEET) 소개
- 03 시험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 안내
- 04 질의응답
※ 참가자에게 설명회 자료집, 기념품 제공

설명회 대상학교

지역	일정	장소	비고
서울	4월 5일(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B2층)	
충남	4월 10일(화)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문원강당(1층)	
경북	4월 12일(목)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4호)	
서울	4월 17일(화)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2층)	
인천	4월 19일(목)	인하대학교 로스쿨관 강당(B1층)	
전남	4월 24일(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 111호	
부산	4월 26일(목)	부산대학교 제2법학관 대강당(1층)	
서울	5월 2일(수)	연세대학교 광복관 105호(B1층)	
제주	5월 3일(목)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B1층)	

※ 컴퓨터 내 주차가 어려우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기간 및 시간

기간 | 2018. 4. 5. ~ 5. 3.
시간 | 14:00 ~ 16:00 (2시간)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있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최대학 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의 학생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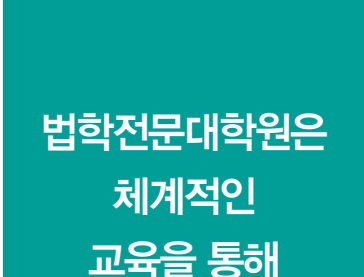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LAW SCHOOLS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